

‘이음 인사이드’로 6000만명 연결… AI 생태계 대연합

KT, ‘모두의 AI’ 사업전략

토종 AI 전문… 실생활 점점 연결
제휴사 플랫폼과 AI 에이전트 연결
최적 경로 찾는 ‘동적 라우팅’ 채택
개인정보보호·전담보안 TF 구성도

KT가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 토종 인공지능(AI) 모델을 심는 ‘이음 인사이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한다.

KT는 지난 11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대국민 AI 서비스 청사진을 담은 ‘모두의 AI’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을 진행한 KT 이진형 AX사업본부장(상무)은 “국내 이용 빈도 상위 5대 서비스 중 토종 AI가 전문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실생활 접점에 AI를 스며들게 하겠다”고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 다음·직방서 곧바로 AI 호출… 개방형 생태계 구축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는 범용 AI 서비스를 공공·금융·쇼핑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KT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다음, 업스테이지, 솔트룩스, 무신사, 직방, EB S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참여한다.



KT가 모두의 AI 핵심 전략으로 ‘이음 인사이드’를 제시했다.

/KT

KT 컨소시엄은 ‘AI라는 세상을 모두에게’란 슬로건을 내걸고 디지털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이 누구나 실생활 AI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숙련자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하나로 있다는 의미를 담아 프로젝트명을 ‘이음’으로 정했다. 여기서 시작한 핵심 전략이 ‘이음 인사이드’다.

이음 인사이드는 개발 키트(SDK) 형태로 작동해 제휴사 플랫폼 내에서 KT의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방향 생태계를 지향한다. 제휴사 앱과 KT

의 이음 에이전트가 연결돼 이용자들이 직방 등 플랫폼에서 AI 검색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제휴사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다음 포털의 4800만 고객 계정과 검색 데이터를 연계한다. 또한 다음 포털에서는 구글의 ‘AI 모드’와 같이 AI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T 컨소시엄의 서비스 접점은 월간활성사용자(MAU) 기준으로 약 6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경험(UX)도 메모리 맵 기반의

초개인화를 구현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관심이 높은 중년 여성은 대화를 통해 관심사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필요한 키워드를 직접 넣어서 특징을 설정할 수 있다.

◆ 콜링엔업스테이지·장문은모티프… 토콘 팩토리로 운영 효율 ↑

방대한 영역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I 운영 플랫폼 ‘KT 토콘 팩토리’도 가동된다. 국산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이 사용자 질문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 경로를 찾아주는 ‘동적 라우팅’ 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언어모델(LLM)에서 업스테이지 솔라는 도구를 호출하거나 핵심적인 판단을 하는데 쓰인다. 장문 입력 처리는 모티프테크놀로지사가 맡는다. 공공 행정은 솔트룩스의 루시아, 소셜 미디어에 배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제작은 NC AI의 AI 모델로 만든다.

KT 이진형 AX사업본부장(상무)은 “향후 모두의 AI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강화 학습과 파인 튜닝, 경량화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하드웨어는 리벨리온 NPU 32장을 묶은 ‘NPU 박스’

를 최적화한다. KT는 리벨리온 NPU가 전력 효율이 뛰어난 점을 들어 성능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버 먹통 원천 차단… 제휴 기업과는 ‘토콘 크레딧’ 정산

보안 대책과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안정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담 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야간 운영 체계를 가동한다. 이용자가 몰려 서버가 과부하되면 KT 자체 GPU 클러스터로 자동 전환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야간 여유 시간 대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GPU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고도화한다.

수익 모델 전환과 관련해서는 향후 정부 로드맵에 따라 프리미엄 서비스에 한해 과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코딩이 필요하거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PC 클라우드 기반의 프리미엄 에이전트를 출시해 유료화할 계획이다.

제휴사와는 사용자와 AI가 주고받은 토큰의 양 만큼을 정산하는 크레딧 연동 체계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무료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SKT, 경남도 4개군에 ‘찾아가는 서비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서 보이스피싱 체험 등 프로그램 제공

SK텔레콤이 지방자치단체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나가기 위해 경상남도 4개군과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산청군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신성범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명현 산청군수, 이흥기 거창군수, 진병영 함양군수가 지난 11일 산청군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전국 74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총 145회 운영했다. 올해는 약 1만3000명 고객을 직접 만나는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회사 측은 이같은 개별 프로그램을 지자체 협력형 모델로 발전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이들 4개



(왼쪽부터)SK텔레콤 김우람 대외지원실장, 김윤철 합천군수, SK텔레콤 이해연 고객가치혁신실장, 신성범 국회의원, 유명현 산청군수, 이흥기 거창군수, 진병영 함양군수가 지난 11일 산청군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SK텔레콤

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산청군(46.3%), 함양군(42.2%), 거창군(34.7%), 합천군(48.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고령인구 비율(21.7%)의 1.6~2.3배 수준이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고령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 사례가 많고 디지털 정보격차 역시 매우 크다”며 “직접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연계

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서 각각 2회씩, 총 8회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맞게 강의 형태의 교육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체험 등 참여형, 실습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금융범죄 예방과 휴대폰 활용처럼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평소 궁금했던 통신 서비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민선 기자

KT, 미디어 단말용 칩셋 공급망 선점

애플과 공급체계 구축 ‘맞손’

KT가 글로벌 펌프스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미디어 단말용 칩셋 공급망 선점에 나선다.

KT는 세계 최대 미디어 전시회 ‘IBC 2026’에서 애플과 단말 칩셋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펌프스 반도체 기업이다. KT가 미디어 단말용 칩셋을 공급받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취지다.

이번 협약을 통해 TV 셋톱박스 등 미디어 단말에 쓰이는 칩셋을 조달하고 공급망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시스템 온 칩(SoC) 솔루션 공급과 단말의 인공지능(AI) 기능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도 병행한다.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IBC 2026’에서 KT SCM실 AX·IT구매담당 김재남 상무(왼쪽)와 애플 이명 중 미국 법인 CEO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KT

이번 전시회에서 ‘KT글로벌 상생 성장관’을 열고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도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마르시스, 오성전자, 에너지이, 캐스트이즈, 루나르트, 파일러, 스틸컷, 엑스엘에이트 AI 등 8 곳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전문 인력도 투입된다.

/조민선 기자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신작 공개

2030년 오픈 월드 슈팅게임으로 귀환 스타크래프트 2 이후 약 11년 만

블리자드가 대표 지식재산권(IP)인 ‘스타크래프트’ 신작을 오는 2030년 출시한다. 기존 실시간전략게임(RTS)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직접 전장에 뛰어드는 오픈 월드 슈팅게임으로 장르를 확장한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팬 행사 ‘블리즈콘’에서 스타크래프트 신작을 공개

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스타크래프트의 대표 종족인 저그와 함께 병사의 시점에서 전장을 누비는 장면이 담겼다. 신작은 기존 시리즈의 테란·저그·프로토스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게임 방식에는 변화를 준다.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 첫 작품이 출시된 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블리자드를 대표하는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시리즈 신작 공개는 2015년 스타크래프트2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공허의 유

산’ 이후 약 11년 만이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디아블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된다. 차기작 ‘디아블로5’도 공개했다. 2029년 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야마 디아블로가 이미 세계 ‘생츠퍼리’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신규 프로젝트도 공개됐다. 블리자드는 오는 11월 4일 ‘WoW 포에버’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들이 ‘클래식 플러스’로 불러온 프로젝트로, 2004년 출시 당시 게임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와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통한 24시간 대응 체계 가동 본격화

LG유플러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 피싱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기간에는 범죄 조직이 악성 앱을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 회사를 사칭하는 전화·문자 등을 통해 ‘추석 선물 택배를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인증되지 않은 불법 투자 사이트나 비공식 거래 앱을 통한 투자를 유

도하면서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려는 새로운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서울 마곡사옥에 전담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악성 앱 서버 추적·차단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악성 앱 감염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경찰 측의 차단 요청에도 즉각 대응한다.

키카오톡 알림톡 발송을 통해 악성 앱 제어 서버와 접촉하는 등 위험 상황도 알릴 예정이다. 고객은 가까운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민선 기자